

# 한국 비정규직 노동자의 삶의 질

신 승 배\* · 김 양 건\*\*

이 연구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삶의 질이 삶의 주관적 목표와 객관적 환경과의 일치 정도를 반영하고 있는 삶의 특정 영역에 대한 만족도의 결과임을 밝혀보고자 했다. 분석에 의하면, 비정규직 노동자의 삶의 질이 정규직보다 낮게 나타났고, 임금노동자들의 삶의 질은 시간당 임금이 높을수록 삶의 질이 높고, 강원/제주에 비해 경상과 충청지역 거주자들의 삶의 질이 낮고, 가족의 수입, 여가활동, 주거환경, 가족관계, 친인척 관계, 사회적 친분관계, 주관적 건강상태의 7개 삶의 영역별 만족도가 높을수록 전반적 삶의 질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당 임금은 임금노동자에게 중요한 영향요인으로 모든 삶의 영역별 만족도에 영향을 미쳤지만 비정규직에서는 가족의 수입에 대한 만족에만 영향을 미쳤고, 삶의 영역별 만족도와 함께 평가된 비정규직의 전반적인 삶의 만족에는 그 영향력이 사라졌다. 또한 삶의 각 영역별 만족에 관한 변인이 추가된 분석모형은 객관적 지표로만 구성된 분석모형보다 전반적인 삶의 질을 더 잘 설명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1. 들어가는 글

산업사회 이후 임금노동과 직업은 다수의 사람들에게 중요한 생계의 축이자 삶에 대한 내적 안정성을 제공한다. 그러나 표준화된 완전고용체계가 무너지고 유연하고 다원화된 고용형태의 확산은 고용불안정을 발생시키면서 노동자들이 임금노동과 직업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내적 안정성에도 크게 영향을 미쳤다. 일찍이 Ulrich Beck(Beck, 2006: 226-241)의 경고처럼 노동자들은 유연하고 다원적인 저고용과 일시적 고용의 가능성들의 확대가 가져온 위험에 노출되었다. 1997년 금융위기를 기점으로 빠르게 전개된 노동시장의 유연화는 이러한 위험을 확산시키는 기폭제가 되었으며 금융위기를 벗어난 현재까지도 여전히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게다가 최근 저성장의 늪에 빠진 경제로 인해 낙수효과마저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의 지속은 기존 분배체계에 대한 의구심을 확대함으로써 사회불안을 키우고 노동자들에게서는 미래에 대한 기대마저 앓아가고 있다.

통계청(KOSIS)에 따르면, 2016년 8월 기준 한국의 임금노동자는 19,627천명으로 경제활동인구의 71.3%를 차지하고 있으며, 임금노동자 중 정규직은 12,966천명으로 66.1%를 차지하고 있다. 이 중 비정규직은 6,660천명으로 임금노동자의 33.9%를 차지하고 있다. 1997년 금융위기 이후 2000년에 52.1%까지 증가하였던 비정규직 규모는 2002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5년부터는 35% 미만

\* 서강대학교 철학연구소 연구교수

\*\* 성균관대 국정전문대학원 행정학과 박사과정 수료

을 유지하고 있다. 최근 한국경제는 1997년의 금융위기의 그늘을 벗어난 것으로 평가받고 있고, 비정규직의 규모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들이 체감하는 고용불안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 2015년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용안정성에 ‘불안’을 느끼는 사람들의 비율이 61%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6년 3월 기준 평균근속기간은 정규직 7년 5개월, 비정규직 2년 5개월로 평생직장의 개념이 사라진지 오래이다. 더욱이 정규직의 41.5%는 근속기간이 3년 미만이며, 비정규직의 52.9%는 근속기간이 1년 미만으로 많은 노동자들이 지속적인 고용에 대한 안정감을 갖기 어려운 상황이다. 고용불안에 대한 우려는 실직이 가져오는 경제적 수입과 사회적 지위의 상실, 그로 인한 일상생활의 어려움, 재취업에 대한 우려, 실직의 장기화가 가져오는 빈곤화 등의 문제에 기인한다. 이러한 우려는 역으로 실직에 따른 위험을 감소시킬 만한 사회적 안전장치가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오랫동안 지속해온 성장위주의 정책이 사회전반적인 생활수준을 높이는 긍정적인 기여에도 불구하고 경기침체와 저성장이 지속되는 상황 속에서 사회적 위험을 증가시킨 요인으로 지목되면서 세계 각국은 경제성장 일변도의 정책에서 벗어나 지속가능한 삶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졌다. 최근 한국에서 삶의 질이나 행복에 관한 관심이 높아진 것 역시 이와 무관하지 않다.

이 연구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구성된 임금노동자들의 주된 삶의 영역을 중심으로 그들의 삶의 질이 어느 정도인지 분석하고자 한다. 전체 임금노동자 가운데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의 삶의 질에 대한 차이를 살펴보고, 이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요인이 무엇인지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성별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정규직 남녀노동자와 비정규직 남녀노동자의 삶의 질의 차이를 순차적으로 살펴보고 그 영향요인이 무엇인지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이 연구는 삶의 질에 대한 객관적 조건보다 삶의 영역별 만족도가 전반적인 삶의 질을 더 잘 설명할 수 있다는 Van Praag와 Perreri-Carbonell(2004)의 연구와 삶의 특정 영역이 전반적인 삶의 만족에 의해 평가될 수 있다고 주장한 Easterlin과 ,Sawangfa(2009), 신승배(2015)의 연구를 토대로 가족의 수입, 여가생활, 주거환경, 가족관계, 친인척 관계, 사회적 친분관계, 주관적 건강상태와 같은 삶의 영역이 전반적인 생활만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방법은 노동자들의 삶을 구성하는 주요 삶의 영역들과 전반적인 삶의 만족과의 관계를 통해 드러나는 패턴을 통해 삶의 각 영역들이 삶의 질을 얼마나 잘 설명할 수 있는지도 검증할 수 있다.

##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 1. ‘삶의 질’의 측정

인간의 삶은 매우 다양한 요소로 구성된다. 삶을 구성하는 다양한 요소만큼 삶의 질을 평가하는 방법에 관해서도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구체적인 측정방법에 있어서는 여전히 논란이 있다. 다만 과거에는 소득이나 직업과 같은 객관적 측면이 주로 다루어졌으며, 주관적 측면이 소홀하게 다루어졌으나 점차 소득 중심의 객관적 지표만으로는 삶의 다양한 측면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주관적 요소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사람은 객관적 환경뿐만 아니라 개인이 가진 가치관, 기대감, 인성적 특성, 사회인구학적 특성 등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으며, 개인이 경험하는 만족은 비교에 의해 결정되고 이러한 만족은 삶의 변화에 따라 그 평가에도 영향을 미친다(Campbell et al., 1976). 따라서 삶의 질에 대한 평가는 객관적 요소뿐만 아니라 삶의 질에 대한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들의 인지적 차원과 감정적 차원의 주관적 측면 역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Diener, 1994; Veenohven, 1991).

삶의 질 측정에 있어서 객관적 측면은 소득이나 의식주의 상태, 교육수준과 같은 사회적이고 물리적인 환경에 의해 평가되고(김경근, 2009), 주관적 측면은 개인들이 그들의 삶에서 체험하는 만족감, 행복감, 성장감, 가치있는 삶을 산다는 느낌 등에서 평가될 수 있다(박성복, 2003). 교육, 소득, 직업 등이 객관적 지표라면 삶의 각 영역에 대해 갖는 만족감은 주관적 지표로 분류할 수 있다. 최근 한국의 경제성장과 삶의 만족에 대한 불일치 역시 소득 중심의 객관적 지표의 한계를 보여주는 사례이다. 한국은 OECD 회원국 중 가장 빠르게 성장한 국가 중 하나로 2015년 기준 세계6위 수출대국이자 세계11위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하였다. 한국의 눈부신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2015년 기준 한국의 주관적인 삶의 만족도는 5.8점으로 36개 OECD 회원국 중 29위로 하위 20% 수준에 머물렀으며, 일과 삶의 균형도 하위권에 머물렀다(OECD, 2016: 8-9). 이러한 결과는 외형적인 경제성장이 반드시 높은 삶의 질을 담보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국가의 경제발전이 가져다 준 물질적인 풍요가 삶의 만족도나 행복도와 반드시 비례하지 않는다는 의견은 이른바 ‘Easterlin Paradox(이스털린의 역설)’로 알려진 주장에서도 드러난다. Easterlin(1974; 1995)에 의하면 일정수준까지는 소득이 높은 사람들의 행복감이 높지만 일정 시점이 지나면 소득 수준이 더 높아져도 행복감은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다고 한다. 또한 Frey와 Stutzer(2002)는 개발도상국에서는 소득이 높을수록 더 행복감이 높지만 부유한 국가에서는 소득이 행복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한다. 성장을 중심으로 한 거시적 경제지표가 만족할 만한 삶의 수준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Stiglitz 등(2009)은 외형적 성장에 치중한 경제적 지표를 대신할 적절한 웰빙 지표의 개발을 통해 삶의 질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삶의 질’의 측정에 있어서 주관적 지표에 대한 관심은 경제적 성장 이외의 삶의 다양한 영역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켰다. 더불어 각국 정부가 경제성장보다는 국민의 행복증진과 고통감소 정책 개발 및 국민의 삶의 질과 행복을 측정하고 평가하려는 다양한 시도의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 2. 삶의 질과 삶의 하위차원으로서의 삶의 영역

삶의 구성요소로서의 여러 영역별 만족과 전반적인 삶의 질과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는 많지 않다. 영역별 만족도에 관한 과거의 연구들은 전반적인 삶의 만족에 관한 것보다는 직업이나 주거, 재정, 소득, 생활 수준 등의 특정 상황에 대한 만족을 설명하는데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Van Praag와 Ferrer-i-Carbonell(2004)에 의하면, 객관적인 조건들보다 다양한 삶의 영역에 대한 만족이 전반적인 삶의 만족에 대하여 통계적으로 더 유용한 설명을 제공한다고 한다. 또한 Easterlin과

Sawangfa(2009)는 특정 삶의 영역이 삶의 만족을 변함없이 설명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영역별 만족도가 삶의 만족에 대한 패턴을 모두 설명할 수 있는 것도 아니지만 삶의 대한 만족과 행복을 설명하는 보다 합리적인 시각을 제공한다고 주장한다.

삶의 어떤 영역이 전반적인 삶의 만족이나 행복한 삶을 더 잘 설명하는지에 대해서는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지만 사실상 많은 삶의 영역에 대한 연구들은 재정, 가정, 건강, 일의 4가지 영역을 주로 다루고 있다(Cummins, 1996). 대부분 삶의 질에 대한 연구에서 삶의 영역은 이 4가지 영역을 토대로 연구의 필요에 따라 더 세분화하거나 축소되기도 하며, 때로는 조사 데이터가 갖는 한계에 영향을 받기도 한다. 이현송(1999)은 주관적인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에 관한 분석을 통하여 가구수입, 가족관계, 여가활동, 주거환경, 근로활동의 5개 삶의 영역이 전반적인 삶의 만족을 설명하는데 매우 유용하다고 한다. Easterlin(2006)은 영역별 만족도와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에 대한 유럽 12개국의 개별 데이터 분석을 통하여 모든 나라에서 삶의 물질적 조건 중에서는 주거와 재정에 대한 만족, 그리고 사회적 계약 면에서는 개인 간의 관계가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Gandelman 등(2012)은 여가, 사회생활, 가족, 건강, 경제상황, 일에 대한 인지적 측면이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고, 신승배(2015)는 주관적인 행복감이 일, 가정생활, 가계경제, 건강과 같은 삶의 영역에 대한 인식에 의해 더 잘 설명된다고 한다.

삶의 영역별 측정과 관련하여 Easterlin(2006)에 논의를 정리하면, 삶의 영역별 측정은 다음과 같은 장점을 제공한다. 첫째, 사람들이 삶의 질에 관한 질문을 받았을 때 일상생활의 특정 환경을 보다 이해하기 쉽게 분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Campbell et al., 1976; Campbell, 1981). 둘째, 주관적 측면과 객관적 측면을 모두 반영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가정생활 영역에서 아이들과의 행복한 결혼생활이나 따뜻한 가족관계에 대한 만족과 같은 주관적 목표는 객관적 환경이 부족할수록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 셋째, 삶의 변화를 반영할 수 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주관적 목표나 객관적 환경이 둘 중 하나 또는 둘 다 변할 경우 이에 따른 삶의 영역별 변화를 반영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삶의 하위차원으로서 영역별 측정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주관적 목표와 객관적 환경과의 일치정도를 반영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삶의 영역별 측정이 임금노동자의 삶의 질을 더 잘 설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갖는 주관적 목표와 객관적 환경과의 일치정도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3. ‘삶의 질’의 영향 요인에 관한 최근 연구들

임금노동자의 삶의 질을 분석한 최근 연구들은 고용지위가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박재규(2001)는 고용지위가 삶의 질을 하락시키는 요인이라고 한다. 그의 연구에 의하면, 1997년 금융위기 이후 확산된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은 노동자들의 삶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많은 노동자들이 노동유연성과 노동강도의 강화를 경험하였고, 노동의 수량적 유연성 경험이 많을수록, 노동강도의 강화를 심하게 경험한 노동자일수록 삶의 질의 심각한 하락을 경험했다. 또한 고용지위와 더불어 연령과 사회계층도 삶의 질을 하락하는 요인이라고 한다. 문영만(2014)은 정규직과 비정

규직의 생활만족도를 비교를 통하여 정규직의 생활만족도가 비정규직의 생활만족도보다 높고, 비정규직이라는 고용형태 자체가 임금과 근로조건뿐만 아니라 생활만족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또한 선요한 등(2015)은 비정규직 노동이 정신적 건강을 비롯한 노동자의 건강관련 삶의 질에 많은 영향을 준다고 한다. 이러한 고용지위에 따른 삶의 질의 차이는 비정규직의 고용안정성 확대와 정규직과이 차별 격차 해소의 필요성을 보여준다.

고용지위에 따른 삶의 질의 차이는 각 개인의 삶의 하위영역에서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에 관한 연구는 매우 드물다. 노동자의 삶의 질에 관한 연구는 대부분 직업과 직무특성 관련 요인들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최근의 분석 연구들은 삶의 질 측정에 대한 인식적 차원의 중요성과 삶의 질에 대한 삶의 영역별 영향에 대한 가능성을 충분히 보여주고 있다. 삶의 질의 구성요소와 결정요인에 관한 이현송(1999)의 연구에 의하면,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와 관련하여 객관적 조건보다는 가구수입, 가족관계, 여가활동, 주거환경, 근로활동의 5개 삶의 영역에 대한 인식이 전반적인 삶의 만족을 더 잘 설명하며, 특히 수입에 대한 만족이 가장 설명력이 크다고 한다. 또한 전반적인 생활만족도는 성, 연령, 교육수준, 직업, 고용지위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다고 한다. 강성진(2010)은 개인의 소득이 상대적인 비교를 통해서 생활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삶의 각 영역에 대한 만족이 개인의 발전에 긍정적인 기여를 한다고 한다. 그는 소득 외에도 연령과 성이 생활만족도에서 차이를 보인다고 한다. 한편, 한국인의 행복감 결정요인을 분석한 신승배(2015)는 행복에 대한 주관적 인식은 일, 가정생활, 가정경제에 대한 인식에 의해 더 잘 설명되며, 특히 가정생활만족도가 행복감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고학력 취업여성을 대상으로 생활만족 결정요인을 분석한 강영희(2016)는 고학력 취업여성의 생활만족이 가족의 수입, 여가활동, 주거환경, 친인척 관계, 사회적 친분에 대한 만족으로부터 영향을 받으며, 이는 결혼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다고 한다.

이상의 논의를 토대로 이 연구에서는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삶의 하위차원으로 가족의 수입, 여가활동, 주거환경, 가족관계, 친인척 관계, 사회적 친분 관계, 주관적 건강상태의 7개 영역의 인지적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 III. 분석자료 및 분석모형

#### 1. 분석자료

분석에서 사용된 자료는 한국노동연구원의 「한국노동패널」 18차년도(2015) 자료이다. 한국노동패널조사(KLIPS)는 도시 지역에 거주하는 한국의 가구와 가구원을 대표하는 패널 표본구성원(5,000가구에 거주하는 가구원)을 대상으로 1년에 1회씩 가구의 특성과 가구원들의 경제활동 및 노동시장 이동, 소득활동 및 소비, 교육 및 직업훈련, 사회생활 등에 관하여 추적 조사하는 종단면 조사(longitudinal survey)로서 1998년부터 2015년까지 총 18차례에 걸쳐 이루어졌다. KLIPS는 1998

년 제1차 조사에서 표본으로 추출한 5,000가구와 이들 가구를 구성하는 13,321명의 가구원을 대상으로 조사를 시작하였다. 제18차 조사에서 원표본 5,000가구 중 3,421가구 11,446명의 가구원을 성공적으로 조사하여 68.4%의 원표본유지율을 나타냈다.

KLIPS 자료는 크게 가구용 자료와 가구에 속한 만15세 이상의 가구원을 대상으로 한 개인용 자료로 구분된다. 가구용 자료는 가구원의 인적 사항, 변동 가구원 관련 사항, 가족관계와 세대 간 경제적 자원 교류, 주거상태, 자녀교육과 보육, 가구의 소득과 소비, 가구의 자산과 부채, 가구의 경제상태 및 가계에 부담을 느끼는 소비 항목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개인용 자료는 개인의 경제활동, 상태, 소득활동 및 소비, 교육 및 직업훈련, 고용상의 특성, 근로시간, 직무만족 및 생활만족, 구직활동, 노동시장 이동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한국노동패널 User's Guide, 2015). 특히, 이 자료에는 삶의 질을 측정하는 가족의 수입, 여가활동, 주거환경, 가족관계, 친인척 관계, 사회적 친분관계, 주관적 건강상태, 전반적 생활 만족도 문항이 포함되어 있어 이 연구의 목적인 비정규직 노동자의 삶의 질을 진단하는데 매우 유용한 자료로 판단된다.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임금노동자 5,607명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이 가운데 정규직 노동자는 3,454명으로 61.6%였고, 비정규직 노동자는 2,153명으로 38.4%였다. 또한, 정규직에서 남성은 2,260명 65.4%였고, 여성은 1,194명 34.6%였다. 비정규직에서 남성은 1,043명 48.4%였으며, 여성은 1,110명으로 51.6%였다. 정규직은 남성이 많은 분포를 차지한 반면 비정규직은 여성이 더 많은 분포를 나타냈다.

<표 1> 임금근로자 분포

		단위 : 명(%)		
구분		정규직	비정규직	계
성별	남자	2,260 (65.4%)	1,043 (48.4%)	3,303 (58.9%)
	여자	1,194 (34.6%)	1,110 (51.6%)	2,304 (41.1%)
전체		3,454 (100.0%)	2,153 (100.0%)	5,607 (100.0%)

## 2. 변인의 측정

이 연구의 종속변인은 ‘삶의 질’이다. 삶의 질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된 질문 문항은 ‘주관적 생활만족도’로 “전반적으로 생활에 얼마나 만족하고 계십니까?”에 대해 (1) 매우 만족스럽다, (2) 만족스럽다, (3) 보통이다, (4) 불만족스럽다, (5) 매우 불만족스럽다를 역코딩하여 매우 불만족스럽다(1점)에서 “매우 만족스럽다(5점)”까지로 측정된 연속변인이다. 주요 독립변인인 영역별 만족도(domain satisfaction) 변인 가운데 “가족의 수입”, “여가 생활”, “주거 환경”, “가족 관계”, “친인척 관계”, “사회적 친분 관계” 변인은 “매우 만족스럽다”에서 매우 불만족스럽다“까지 5점 척도로 측정되었으며 “주관적 건강상태” 변인은 “아주 건강하다”에서 “건강이 아주 안 좋다”까지 5점 척도로

측정되었다. 또한, 인적자본 변인으로는 교육년수, 근속년수, 시간당 임금으로 측정하였다. 교육년수를 측정하기 위해 응답자의 교육에 관한 정보 두 가지 즉, 학교와 졸업여부를 이용하여 연속형 변인으로 변환하였다. 먼저, 학교를 묻는 질문에는 미취학, 무학,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문대학, 4년제 대학, 대학원 석사, 대학원 박사 등이 포함되어 있고, 졸업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졸업, 수료, 중퇴, 재학, 휴학 등이 포함되어 있다. 해당 학교를 졸업 및 수료한 년수를 각각 6년, 9년, 12년, 14년, 16년, 19년, 23년으로 측정한 후 해당 학교 중퇴, 재학, 휴학은 중간 값을 부여한 후 올림하여 연속형 변인으로 측정하였다. 예를 들어, 초등학교 중퇴인 경우는 3년을 중학교 중퇴인 경우는 8년으로 간주하였다. 근속년수는 조사가 이루어진 해당 년도에서 취업시기를 뺀 기간으로 측정하였다. 시간당 임금은 월평균임금을 월근로시간(주당 근로시간×4.3)으로 나눈 임금을 말한다.

인적속성 변인으로는 성, 연령, 결혼상태 등의 변인을 포함하였다. 노동시장 변인은 거주지역, 기업체 규모, 직종, 노동조합 등의 변인을 포함하였다.

분석방법은 상기한 변인들을 토대로 분석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별 기술통계, 영역별 만족도에 대한 집단 간 평균차이 검증, 영역별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상관관계 및 회귀분석을 실시하고, 비정규직 노동자의 삶의 질을 설명함에 있어 개별 변인의 영향력과 함께 비정규직 노동자의 삶의 질과 관련된 영역별 만족도 변인들을 순차적으로 투입하여 모형의 적합도와 설명력, 변인의 영향력을 함께 살펴볼 수 있는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 3. 분석모형

이 연구에서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하위 영역을 “가족의 수입”, “여가생활”, “주거 환경”, “가족 관계”, “친인척 관계”, “사회적 친분 관계”, “전반적 생활”, “주관적 건강상태”의 8개로 구성하고, 각각의 영역별 만족도가 전반적인 삶의 질을 설명하는데 있어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이 연구에 사용될 변인들을 토대로 연구내용을 모형화하면 아래의 함수 (1)과 같이 표현될 수 있다.

$$QL=a + bX + e \quad \text{----- (1)}$$

여기에서 QL은 이 연구의 종속변인인 삶의 질을 의미하며, 벡터 X는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집합이며, b는 계수값의 벡터이고, e는 기대치 0의 교란항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이 연구의 실증분석을 위한 삶의 질 함수의 기본 모형은 아래의 수식 (2)와 같다.

$$QL= a + b \times SEX + c \times AGE + d \times MAR + e \times EDU + f \times INCOM + g \times JOB + h \times TENU + i \times REG + j \times SIZE + k \times UNION + l \times SATINC + m \times SATLES + n \times SATHOS + o \times SATFAM + p \times SATKIN + q \times SATSOCI + r \times SATLIFE + s \times SATHEALTH + e \quad \text{----- (2)}$$

QL: 삶의 질, SEX: 성, AGE: 연령, MAR: 결혼상태, EDU: 교육, INCOM: 소득, JOB: 직업, TENU: 근속년수, REG: 거주지, SIZE: 기업체 규모, UNION: 노동조합, SATINC: 가족의 수입 만족, SATLES: 여가 생활 만족, SATHOS: 주거 환경 만족, SATFAM: 가족 관계 만족, SATKIN: 친인척 관계 만족, SATSOCI: 사회적 친분 관계 만족, SATLIFE: 전반적 생활만족, SATHEALTH: 주관적 건강상태

## IV. 분석결과

### 1. 분석 대상자의 특성

분석에 사용된 사회인구학적 특성 및 노동시장 변인에 대한 기술통계는 <표 2>에 제시되었다. 먼저, 임금노동자 전체에서 남성은 59%, 여성은 41%였다. 연령은 평균 44.28세, 결혼상태는 미혼이 22%, 기혼 69%, 별거/이혼/사별이 9%였다. 교육년수는 평균 13.21년, 근속년수는 평균 6.74년이었고, 시간당 임금의 로그 환산 값은 9.40으로 나타났다. 직업별 분포를 살펴보면, 관리/전문직이 24%, 사무직 19%, 서비스/판매직 18%, 기능/조립직이 24%였고, 단순노무직은 15%였다. 사업장 규모를 보면, 5-100명 미만이 51%로 가장 많았고, 500명 이상이 24%, 100-500명 미만이 18%, 5명 미만은 7%였다. 노조가 있는 사업장은 17%였으며, 지역별 분포는 서울이 19%, 경기 31%, 경상 29%, 전라 8%, 충청 10%, 강원/제주가 3%였다.

정규직 노동자의 특성을 보면, 정규직 남성은 65%, 여성이 35%였다. 평균 연령은 41.05세, 결혼상태는 미혼이 23%, 기혼 72%, 별거/이혼/사별은 5%였다. 교육년수는 평균 14.26년, 근속년수는 8.05년, 시간당 임금의 로그 환산 값은 9.60으로 임금노동자 전체 평균보다 약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규직 노동자의 직업별 분포는 관리/전문직이 31%, 사무직 27%, 서비스/판매직 12%, 기능/조립직이 24%였고, 단순노무직은 6%였다. 사업장 규모를 보면, 5-100명 미만이 47%로 가장 많았고, 500명 이상이 30%, 100-500명 미만이 21%, 5명 미만은 2% 순이었다. 노조가 있는 사업장은 24%였으며, 지역별 분포는 서울이 18%, 경기 32%, 경상 31%, 전라 8%, 충청 9%, 강원/제주가 2%로 나타났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특성에서, 남성은 48%, 여성이 52%로 여성이 높게 나타났다. 평균 연령은 49.47세로 정규직 보다 높았으며, 결혼상태는 미혼이 20%, 기혼 64%, 별거/이혼/사별은 16%였다. 교육년수는 평균 11.52년, 근속년수는 4.64년, 시간당 임금의 로그 환산 값은 8.98로 임금노동자 전체나 정규직 노동자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직업별 분포는 관리/전문직이 13%, 사무직 7%, 서비스/판매직 26%, 기능/조립직이 23%였고, 단순노무직은 31%로 임금 노동자 전체 및 정규직과 비교해보면 기능/조립직만 유사한 분포를 보였고, 단순노무직은 현저한 차이를 보였다. 사업장 규모를 보면, 5-100명 미만이 60%로 가장 많았고, 100-500명 미만이 13%, 500명



이상이 13%, 5명 미만은 14%였다. 노조가 있는 사업장은 6%였으며, 지역별 분포는 서울이 19%, 경기 28%, 경상 27%, 전라 9%, 충청 13%, 강원/제주가 4%로 나타났다.

<표 2> 분석에 사용된 변인들의 기술통계

구분		전체				정규직				비정규직			
		N	범위	평균	표준편차	N	범위	평균	표준편차	N	범위	평균	표준편차
성(기준여성)	남성	5,607	0-1	.59	.492	3,454	0-1	.65	.476	2,153	0-1	.48	.500
연령(만)		5,607	18-86	44.28	12.609	3,454	19-85	41.05	10.083	2,153	18-86	49.47	14.399
결혼상태 (기준별거/이혼/사별)	미혼	5,607	0-1	.22	.413	3,454	0-1	.23	.421	2,153	0-1	.20	.398
	기혼	5,607	0-1	.69	.463	3,454	0-1	.72	.449	2,153	0-1	.64	.480
교육년수		5,607	0-23	13.21	3.321	3,454	0-23	14.26	2.687	2,153	0-23	11.52	3.536
근속년수		5,600	0-56	6.74	7.257	3,449	0-47	8.05	7.626	2,151	0-56	4.64	6.060
(로그)시간당임금		4,785	0-13	9.40	.661	3,224	0-13	9.60	.600	1,561	0-12	8.98	.578
직업 (기준단순노무직)	관리/전문직	5,572	0-1	.24	.430	3,451	0-1	.31	.464	2,121	0-1	.13	.340
	사무직	5,572	0-1	.19	.396	3,451	0-1	.27	.446	2,121	0-1	.07	.250
	서비스/판매직	5,572	0-1	.18	.382	3,451	0-1	.12	.329	2,121	0-1	.26	.441
	기능/조립직	5,572	0-1	.24	.427	3,451	0-1	.24	.430	2,121	0-1	.23	.422
사업장규모 (기준5명미만)	5-100명 미만	3,099	0-1	.51	.500	2,057	0-1	.47	.499	1,042	0-1	.60	.491
	100-500명 미만	3,099	0-1	.18	.388	2,057	0-1	.21	.410	1,042	0-1	.13	.332
	500명 이상	3,099	0-1	.24	.428	2,057	0-1	.30	.457	1,042	0-1	.13	.340
노조(기준노조없음)	노조있음	5,511	0-1	.17	.379	3,422	0-1	.24	.429	2,089	0-1	.06	.242
지역 (기준강원/제주)	서울	5,607	0-1	.19	.388	3,454	0-1	.18	.386	2,153	0-1	.19	.392
	경기	5,607	0-1	.31	.461	3,454	0-1	.32	.468	2,153	0-1	.28	.450
	경상	5,607	0-1	.29	.456	3,454	0-1	.31	.461	2,153	0-1	.27	.446
	전라	5,607	0-1	.08	.276	3,454	0-1	.08	.265	2,153	0-1	.09	.292
	충청	5,607	0-1	.10	.303	3,454	0-1	.09	.281	2,153	0-1	.13	.335

## 2. 삶의 질 변인에 대한 기술통계 및 평균차이 검증결과

삶의 질을 나타내는 일상생활 만족도에 대한 기술통계 및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삶의 질에 대한 평균차이 검증결과는 <표 3>과 같다. 우선, 전반적 생활에 대한 만족도에서 임금노동자 전체는 5점 만점에 평균 3.46점이었고 정규직 노동자는 3.56, 비정규직 노동자는 3.30으로 나타나 비정규직 노동자의 삶의 질이 임금노동자 전체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며, 정규직 노동자에 비해 낮은 점수를 보이고 있다. 영역별 만족도를 살펴보면, 가족의 수입에 대한 만족은 임금노동자 전체 평균은 3.06으로 보통을 약간 상회하고 있고, 정규직은 3.18, 비정규직은 2.87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평균 차이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여가활동에 대한 만족은 임금노동자 전체 평균이 3.20이고, 정규직

은 3.30, 비정규직은 3.03으로 정규직 노동자는 임금노동자 전체 평균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비정규직은 전체 평균보다 낮았고 정규직에 비해 현저히 낮게 나타났다. 주거환경에 대한 만족도 점수는 임금노동자 전체 평균이 3.48점 이었고, 정규직은 3.56, 비정규직은 3.34였고, 가족관계에 대한 만족도는 임금노동자 전체 평균은 3.65점, 정규직은 3.75, 비정규직은 3.51이었다. 친인척 관계에 대한 만족도는 임금노동자 전체 평균이 3.48점, 정규직은 3.56, 비정규직이 3.34였으며, 사회적 친분 관계에 대한 만족도는 임금노동자 전체 평균이 3.50점, 정규직이 3.58, 비정규직은 3.38점이었다. 주관적 건강상태는 임금노동자 전체 평균이 3.62점, 정규직이 3.73, 비정규직은 3.44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삶의 영역별 만족도에서도 임금노동자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정규직 노동자들에 비해 삶의 질이 현저히 낮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3> 삶의 질 변인에 대한 기술통계 및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평균차이 검증결과

삶의 질	임금노동자 전체				정규직①			비정규직②			평균차이 ①-②
	N	범위	평균	표준편차	N	평균	표준편차	N	평균	표준편차	
가족의 수입	5,581	1-5	3.06	3.06	3,438	3.18	.659	2,143	2.87	.659	.31***
여가활동	5,580	1-5	3.20	3.20	3,438	3.30	.635	2,142	3.03	.638	.27***
주거환경	5,580	1-5	3.48	3.48	3,438	3.56	.598	2,142	3.34	.669	.23***
가족관계	5,580	1-5	3.65	3.65	3,438	3.75	.520	2,142	3.51	.623	.24***
친인척 관계	5,580	1-5	3.48	3.48	3,438	3.56	.558	2,142	3.34	.576	.22***
사회적 친분 관계	5,580	1-5	3.50	3.50	3,438	3.58	.533	2,142	3.38	.579	.20***
주관적 건강상태	5,603	1-5	3.62	3.62	3,451	3.73	.564	2,152	3.44	.674	.29***
전반적 생활만족도	5,583	1-5	3.46	3.46	3,438	3.56	.528	2,145	3.30	.556	.26***

주 : 평균차이의 유의도 수준은 t-test에 대한 추정임.

\* p<.05, \*\* p<.01, \*\*\* p<.001

다음으로, 성별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삶의 질 평균차이 검증결과는 <표 4>에 제시되었다. 먼저, 삶의 질을 나타내는 전반적 생활만족도는 남성 정규직이 3.57로 가장 높았고, 남성 비정규직이 3.29로 가장 낮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영역별 만족도에서는 모든 집단에서 가족관계 만족도, 주관적 건강상태, 사회적 친분 관계에 대한 만족도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가족의 수입 만족도가 가장 낮았다. 영역별 만족도별로 집단 간 평균차이 검증결과를 살펴보면, 남성 정규직과 여성 정규직에서는 여가활동 만족도, 친인척 관계 만족도, 사회적 친분 관계 만족도에서 남성 정규직이 여성 정규직보다 평균이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남성 정규직과 남성 비정규직, 남성 정규직과 여성 비정규직, 여성 정규직과 남성 비정규직, 여성 정규직과 여성 비정규직 모두에서 영역별 만족도는 남성 정규직과 여성 정규직이 남성 비정규직과 여성 비정규직보다 평균이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하지만, 남성 비정규직과 여성 비정규직의 평균차이 검증에서는 가족관계 만족도와 친인척 관계 만족도에서 여성 비정규직의 평균이 높았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표 4> 성별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삶의 질 평균차이 검증결과

삶의 질	남성정규직①			여성정규직②			남성비정규직③			여성비정규직④			평균차이					
	N	평균	표준 편차	N	평균	표준 편차	N	평균	표준 편차	N	평균	표준 편차	①-②	①-③	①-④	②-③	②-④	③-④
가족의 수입	2248	3.17	.648	1190	3.19	.679	1036	2.85	.656	1107	2.88	.662	-.02	.32***	.29***	.34***	.31***	-.03
여가활동	2248	3.32	.625	1190	3.27	.651	1035	3.01	.637	1107	3.05	.638	.05*	.316***	.26***	.26***	.22***	-.04
주거환경	2248	3.58	.585	1190	3.54	.622	1035	3.33	.656	1107	3.34	.681	.04	.24***	.24***	.21***	.20***	-.01
가족관계	2248	3.75	.514	1190	3.73	.531	1035	3.48	.636	1107	3.54	.610	.03	.28***	.22***	.25***	.19***	-.06*
친인척 관계	2248	3.58	.547	1190	3.52	.576	1035	3.31	.581	1107	3.36	.570	.06**	.27***	.22***	.21***	.16***	-.05*
사회적 친분 관계	2248	3.60	.531	1190	3.55	.535	1035	3.36	.586	1107	3.39	.572	.05*	.24***	.20***	.19***	.16***	-.03
주관적 건강상태	2258	3.73	.567	1193	3.72	.559	1043	3.46	.661	1109	3.42	.687	.02	.27***	.31***	.26***	.30***	.04
전반적 생활만족도	2248	3.57	.521	1190	3.54	.541	1037	3.29	.553	1108	3.30	.559	.03	.28***	.27***	.25***	.24***	-.02

주: 평균차이의 유의도 수준은 t-test에 대한 추정임.

\* p<.05, \*\* p<.01, \*\*\* p<.001

### 3. 임금노동자의 영역별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상관 및 회귀분석 결과

임금노동자 전체의 영역별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상관관계 및 회귀분석결과는 <표 5>에 제시된 바와 같다. 먼저, 가족의 수입에 대한 만족도에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변인들은 연령, 기혼, 교육년수, 근속년수, 시간당 임금, 직업에서 관리/전문직, 사무직, 서비스/판매직, 기능/조립직, 사업장 규모에서 5-100명 미만, 500명 이상, 노조 있음, 거주지역에서 경기, 경상, 전라 등이 유의미한 연관관계를 나타냈으며, 인과적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남성(-), 연령(+), 미혼(+), 기혼(+), 교육년수(+), 시간당 임금(+), 관리/전문직(+), 서울(-), 경기(-), 경상(-), 충청(-) 변인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성에 비해 남성이 가족의 수입에 대한 만족도가 낮으며, 연령이 높을수록, 별거/이혼/사별한 사람에 비해 미혼, 기혼인 사람들이, 교육년수가 높을수록, 시간당 임금이 많을수록, 단순 노무직에 비해 관리/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가족의 수입 만족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거주지역에서는 강원/제주에 비해 서울, 경기, 경상, 충청도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가족의 수입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가활동에 대한 만족도에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변인들은 남성, 연령, 기혼, 교육년수, 근속년수, 시간당 임금, 직업에서, 관리/전문직, 사무직, 서비스/판매직, 기능/조립직, 사업장 규모에서 5-100명 미만, 500명 이상, 노조 있음, 거주지역에서 경기, 전라, 충청 등이 유의미한 연관관계를 나타냈으며, 인과적 영향은 교육년수(+), 근속년수(+), 시간당 임금(+), 관리/전문직(+), 사무직(+), 서울(-), 경기(-), 경상(-), 충청(-) 등의 변인이 인과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가활

동에 대한 만족도는 교육년수가 높을수록, 근속년수가 길수록, 시간당 임금이 높을수록, 단순 노무직에 비해 관리/전문직과 사무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여가활동 만족도가 높고, 거주지역에서는 강원/제주에 비해 서울, 경기, 경상, 충청도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여가활동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환경에 대한 만족에서는 남성, 미혼, 기혼, 교육년수, 근속년수, 시간당 임금, 직업에서 관리/전문직, 사무직, 서비스/판매직, 기능/조립직, 사업장 규모에서 5-100명 미만, 500명 이상, 노조 있음, 거주지역에서 경기, 경상, 전라 등이 유의미한 연관관계를 나타냈다. 인과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기혼(+), 교육년수(+), 근속년수(+), 시간당 임금(+), 관리/전문직(+), 경상(-), 충청(-) 변인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인과관계를 나타냈다. 즉, 주거환경에 대한 만족도는 별거/이혼/사별에 비해 기혼인 사람들이, 교육년수가 높을수록, 근속년수가 길수록, 시간당 임금이 높을수록, 단순 노무직에 비해 관리/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주거환경에 대한 만족감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거주지역에서는 강원/제주에 비해 경상, 충청도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주거환경에 대한 만족감이 낮음을 알 수 있다.

가족관계에 대한 만족도에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나타낸 변인들은 남성, 연령, 미혼, 기혼, 교육년수, 근속년수, 시간당 임금, 직업에서 관리/전문직, 사무직, 서비스/판매직, 기능/조립직, 사업장 규모에서 5-100명 미만, 100-500명 미만, 500명 이상, 노조 있음, 거주지역에서 서울, 경상, 충청 등이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인과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남성(-), 미혼(+), 기혼(+), 시간당 임금(+), 전라(-) 변인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인과관계를 나타냈다. 즉, 가족관계에 대한 만족도는 여성에 비해 남성이 낮게 나타났으며, 별거/이혼/사별에 비해 미혼과 기혼인 사람들이, 시간당 임금이 높을수록 가족관계에 대한 만족감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거주지역에서는 강원/제주에 비해 전라도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가족관계에 대한 만족감이 낮음을 알 수 있다.

친인척 관계에 대한 만족도에서는 남성, 연령, 미혼, 기혼, 교육년수, 근속년수, 시간당 임금, 직업에서 관리/전문직, 사무직, 서비스/판매직, 기능/조립직, 사업장 규모에서 5-100명 미만, 500명 이상, 노조 있음, 거주지역에서 서울, 경기, 전라, 충청 등이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인과적으로 유의미한 변인은 기혼(+), 시간당 임금(+), 서울(-), 경기(-), 경상(-), 전라(-), 충청(-) 등의 변인이었다. 즉, 친인척 관계에 대한 만족도에서는 별거/이혼/사별에 비해 기혼자들이, 시간당 임금이 높을수록 친인척 관계에 대한 만족도 수준이 높고, 거주지역에서는 강원/제주 지역에 비해 서울, 경기, 경상, 전라, 충청 등 모든 지역이 친인척 관계에 대한 만족감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친분 관계에 대한 만족도에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변인은 남성, 연령, 미혼, 기혼, 교육년수, 근속년수, 시간당 임금, 직업에서 관리/전문직, 사무직, 서비스/판매직, 기능/조립직, 사업장 규모에서 5-100명 미만, 500명 이상, 노조 있음, 거주지역에서 경기, 경상 등이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인과적으로 유의미한 변인은 기혼(+), 시간당 임금(+), 경상(-) 변인으로 나타났다. 즉, 사회적 친분 관계에 대한 만족도는 별거/이혼/사별에 비해 기혼자들이, 시간당 임금이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고, 강원/제주에 비해 경상도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사회적 친분 관계에 대한 만족도가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주관적 건강상태를 살펴보면, 남성, 연령, 미혼, 기혼, 교육년수, 근속년수, 시간당 임금, 직업에서 관리/전문직, 사무직, 서비스/판매직, 기능/조립직, 사업장 규모에서 5-100명 미만, 100-500명 미만, 500명 이상, 노조 있음, 거주지역에서 경기, 경상, 충청 등이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인과적으로 유의미한 변인은 연령(-), 교육년수(+), 근속년수(+), 시간당 임금(+), 사업장 규모에서 100-500명 미만(+), 500명 이상(+), 서울(+), 경기(+), 전라(+), 등의 변인으로 나타났다. 즉, 주관적 건강상태는 연령이 높을수록 건강이 좋지 않으며, 교육년수가 높을수록, 근속년수가 길수록, 시간당 임금이 높을수록 주관적 건강상태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사업장 규모에 있어서는 5인 미만 사업장에 비해 100-500명 미만과 500명 이상의 비교적 규모가 큰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노동자들이 주관적 건강상태를 양호하게 평가했다. 또한, 지역에서는 강원/제주에 비해 서울, 경기, 전라도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주관적 건강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임금노동자의 영역별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회귀분석 결과

구분		가족의 수입 (N=2,560)		여가활동 (N=2,560)		주거환경 (N=2,560)		가족관계 (N=2,560)		친인척 관계 (N=2,560)		사회적 친분관계 (N=2,560)		주관적 건강상태 (N=2,568)		
		r	β	r	β	r	β	r	β	r	β	r	β	r	β	
성(기준:여성)	남성	.022	-.038***	.043**	-.023	.043**	-.031	.027*	-.043*	.045**	-.013	.042**	-.011	.057***	-.008	
연령(만)		-.094***	.057*	-.087***	.014	-.024	.052	-.091***	-.031	-.079***	-.027	-.086**	-.001	-.281***	-.184***	
결혼 상태	미혼	-.015	.136**	-.007	.048	-.091***	.055	-.094***	.084*	-.092***	-.015	-.043**	.052	.100***	.049	
(기준:별거/이혼/사별)	기혼	.079***	.112**	.072***	.053	.156***	.137**	.196***	.261***	.168***	.143**	.116**	.119**	.017	.053	
교육년수		.221***	.061*	.212***	.065*	.181***	.075**	.204***	.042	.186***	.051	.184**	.038	.287***	.084**	
근속년수		.135***	.037	.126***	.030*	.121***	.051*	.082***	-.002	.089***	.016	.081**	.009	.033*	.047*	
(로그)시간당 임금		.271***	.236***	.231***	.109***	.203***	.111***	.192***	.118**	.188***	.121**	.194**	.142***	.193***	.090**	
직업	관리/전문직	.170***	.038*	.151***	.141***	.131***	.079*	.124***	.036	.124***	.056	.138**	.063	.143***	.016	
	사무직	.115***	.040	.120***	.121**	.087***	.050	.088***	.024	.081***	.042	.069**	.036	.112***	.023	
	(기준:단순노무직)	서비스/판매직	-.101***	.002	-.084***	.044	-.071***	.015	-.061***	-.018	-.054***	.021	-.053**	.009	-.033*	.001
	기능/조립직	-.055***	-.022	-.067***	.031	-.048***	-.005	-.045**	-.022	-.040**	-.005	-.047**	-.004	-.050***	.009	
사업장 규모	5-100명 미만	-.105***	.038	-.085***	.051	-.085***	-.018	-.119***	-.014	-.080***	.023	-.095**	.040	-.118***	.036	
	100-500명 미만	.028	.034	.009	.035	.019	-.010	.046*	.029	.018	.029	.014	.037	.083***	.150***	
	(기준:5명 미만)	500명 이상	.156***	.068	.141***	.089	.131***	.032	.158***	.059	.128***	.050	.148**	.080	.140***	.140**
노조(기준:노조없음)	노조있음	.152***	.027	.148***	.031	.135***	.024	.128***	.020	.120***	.018	.120**	.037	.091***	-.045*	
거주 지역 (기준:강원/제주)	서울	.007	-.155***	.004	-.141**	-.013	-.039	.059***	.021	-.058***	-.140**	-.010	-.064	.015	.116*	
	경기	-.099***	-.331***	-.032*	-.227***	.042*	-.087	.001	-.070	.054***	-.173*	.055**	-.078	.165***	.226**	
	경상	.055***	-.178**	.020	-.190**	-.045**	-.120*	-.063***	-.093	-.015	-.224***	-.071**	-.178**	-.109***	.090	
	전라	.040**	-.062	.027*	-.055	.029*	-.041	-.017	-.066*	.029*	-.101**	.020	-.038	-.019	.082*	
	충청	-.009	-.122**	-.038**	-.129***	-.016	-.072*	.029*	.000	-.031*	-.136***	.006	-.046	-.077***	.005	
(상수)		-	.436	-	1.935***	-	2.073***	-	2.491***	-	2.459***	-	2.192***	-	2.681***	
R <sup>2</sup>		-	.145	-	.091	-	.082	-	.108	-	.084	-	.083	-	.133	
adj R <sup>2</sup>		-	.138	-	.084	-	.075	-	.101	-	.077	-	.076	-	.126	
F		-	21.454***	-	12.753***	-	11.322***	-	15.424***	-	11.695***	-	11.463***	-	19.463***	

\* p<.05, \*\* p<.01, \*\*\* p<.001

다음으로, 정규직 노동자의 영역별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표 6>에 제시되었다. 먼저, 정규직 노동자의 가족의 수입에 대한 만족도에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변인들은 연령, 기혼, 교육년수, 근속년수, 시간당 임금, 직업에서 관리/전문직, 사무직, 서비스/판매직, 기능/조립직, 사업장 규모에서 5-100명 미만, 500명 이상, 노조 있음, 거주지역에서 서울, 경기, 경상 등이 유의미하였으며, 인과적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남성(-), 미혼(+), 기혼(+), 시간당 임금(+), 서울(-), 경기(-), 경상(-), 충청(-) 변인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정규직 노동자의 가족의 수입에 대한 만족도는 여성에 비해 남성이 만족도가 낮으며, 별거/이혼/사별한 사람에 비해 미혼, 기혼인 사람들이, 시간당 임금이 많을수록 가족의 수입 만족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거주지역에서는 강원/제주에 비해 서울, 경기, 경상, 충청도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가족의 수입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규직 노동자의 여가활동에 대한 만족도에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변인들은 남성, 연령, 기혼, 교육년수, 근속년수, 시간당 임금, 직업에서, 관리/전문직, 사무직, 서비스/판매직, 기능/조립직, 사업장 규모에서 5-100명 미만, 500명 이상, 노조 있음 등이 유의미한 연관관계를 나타냈으며, 인과적 영향은 교육년수(+), 근속년수(+), 시간당 임금(+), 서울(-), 경기(-), 경상(-), 충청(-) 등의 변인이 인과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정규직 노동자의 여가활동에 대한 만족도는 교육년수가 높을수록, 근속년수가 길수록, 시간당 임금이 높을수록 여가활동 만족도가 높고, 거주지역에서는 강원/제주에 비해 서울, 경기, 경상, 충청도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여가활동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규직 노동자의 주거환경에 대한 만족도에서는 미혼, 기혼, 교육년수, 근속년수, 시간당 임금, 직업에서 관리/전문직, 사무직, 서비스/판매직, 기능/조립직, 사업장 규모에서 5-100명 미만, 500명 이상, 노조 있음, 거주지역에서 경기, 경상 등이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인과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기혼(+), 교육년수(+), 근속년수(+), 시간당 임금(+), 경상(-), 충청(-) 변인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인과관계를 나타냈다. 즉, 정규직 노동자의 주거환경에 대한 만족도는 별거/이혼/사별에 비해 기혼인 사람들이, 교육년수가 높을수록, 근속년수가 길수록, 시간당 임금이 높을수록 주거환경에 대한 만족감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거주지역에서는 강원/제주에 비해 경상, 충청도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주거환경에 대한 만족감이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정규직 노동자의 가족관계에 대한 만족도에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나타낸 변인들은 미혼, 기혼, 교육년수, 근속년수, 시간당 임금, 직업에서 관리/전문직, 사무직, 서비스/판매직, 기능/조립직, 사업장 규모에서 5-100명 미만, 500명 이상, 노조 있음, 거주지역에서 서울, 경기, 충청 등이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인과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남성(-), 연령(-), 기혼(+), 시간당 임금(+), 충청(-) 변인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인과관계를 나타냈다. 즉, 정규직 노동자의 가족관계에 대한 만족도는 여성에 비해 남성이 낮게 나타났으며, 연령이 높을수록 가족관계에 대한 만족도가 낮았고, 별거/이혼/사별에 비해 기혼인 사람들이, 시간당 임금이 높을수록 가족관계에 대한 만족감이 높게 나타났다.

정규직 노동자의 친인척 관계에 대한 만족도에서는 남성, 미혼, 기혼, 교육년수, 근속년수, 시간당 임금, 직업에서 관리/전문직, 기능/조립직, 사업장 규모에서 5-100명 미만, 500명 이상, 노조 있

음, 거주지역에서 서울, 경기 등이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인과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난 변인은 연령(-), 교육년수(+), 시간당 임금(+), 서울(-), 경기(-), 경상(-), 전라(-), 충청(-) 등의 변인이었다. 즉, 정규직 노동자의 친인척 관계에 대한 만족도에서는 연령이 높을수록 친인척 관계에 대한 만족도가 낮으며, 교육년수가 높을수록, 시간당 임금이 높을수록 친인척 관계에 대한 만족도 수준이 높고, 거주지역에서는 강원/제주 지역에 비해 서울, 경기, 경상, 전라, 충청 등 모든 지역에서 친인척 관계에 대한 만족감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규직 노동자의 사회적 친분 관계에 대한 만족도에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변인은 남성, 연령, 미혼, 기혼, 교육년수, 근속년수, 시간당 임금, 직업에서 관리/전문직, 서비스/판매직, 기능/조립직, 사업장 규모에서 5-100명 미만, 500명 이상, 노조 있음, 거주지역에서 경기, 경상 등이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인과적으로 유의미한 변인은 시간당 임금(+), 노조 있음(+), 경상(-) 변인으로 나타났다. 즉, 정규직 노동자의 사회적 친분 관계에 대한 만족도는 시간당 임금이 높을수록, 노조가

<표 6> 정규직 노동자의 영역별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회귀분석 결과

구분		가족의 수입 (N=1,868)		여가활동 (N=1,868)		주거환경 (N=1,868)		가족관계 (N=1,868)		친인척 관계 (N=1,868)		사회적 친분관계 (N=1,868)		주관적 건강상태 (N=1,875)		
		r	β	r	β	r	β	r	β	r	β	r	β	r	β	
성(기준여성)	남성	-.013	-.113***	.037*	-.037	.029	-.045	.024	-.055*	.052**	-.017	.042*	-.032	.014	-.020	
연령(만)		-.037*	-.001	-.036*	-.021	.015	-.005	-.028	-.081*	-.031	-.082*	-.035*	-.057	-.154***	-.138***	
결혼 상태	미혼	-.024	.123*	-.026	.003	-.108***	.028	-.129***	-.009	-.116***	-.086	-.064***	-.061	.050**	.024	
(기준 별거/이혼/사별)	기혼	.052**	.116*	.059***	.030	.138***	.125*	.172***	.176**	.142***	.088	.086***	.025	-.001	.034	
교육년수		.174***	.054	.169***	.030*	.160***	.070*	.155***	.035	.137***	.030*	.141***	.035	.138***	.057	
근속년수		.135***	.050	.132***	.061*	.137***	.075*	.082***	.016	.083***	.022	.077***	.017	-.003	.036	
(로그)시간당 임금		.235***	.234***	.201***	.115***	.197***	.101**	.168***	.116***	.172***	.119***	.176***	.142***	.101***	.087**	
직업	관리/전문직	.110***	.063	.088***	.085	.088***	.054	.064***	.072	.061***	.045	.079***	.050	.068***	-.001	
	사무직	.070***	.012	.074***	.080	.049*	.030	.059***	.064	.025	.048	.029	.042	.056**	.018	
	(기준 단순노무직)	서비스/판매직	-.077***	-.007	-.067***	.024	-.059***	.015	-.040*	.029	-.019	.063	-.039*	.022	-.018	.023
	기능/조립직	-.098***	-.037	-.098***	-.006	-.078***	-.005	-.069***	.028	-.045**	.032	-.060***	.024	-.092***	.002	
사업장 규모	5-100명 미만	-.101***	.102	-.084***	.029	-.104***	-.050	-.127***	-.057	-.079***	-.020	-.083***	.006	-.102***	.039	
	100-500명 미만	-.014	.070	-.042	.004	-.026	-.054	-.008	-.031	-.017	-.019	-.039	-.017	.051*	.147*	
	(기준 5명 미만)	500명 이상	.133***	.101	.135***	.060	.139***	-.014	.147***	-.001	.103***	-.008	.131***	.024	.090***	.133
노조(기준 노조없음)	노조있음	.122***	.032	.114***	.029	.122***	.040	.102***	.034	.091***	.020	.100***	.053*	.034*	-.051	
거주 지역 (기준 강원/제주)	서울	.039*	-.133*	.010	-.161**	.002	-.033	.081***	.014	-.066***	-.136*	-.027	-.103	.014	.225***	
	경기	-.116***	-.327***	-.024	-.255***	.056**	-.111	.013	-.065	.059***	-.160*	.065***	-.118	.175***	.378***	
	경상	.030	-.179**	-.003	-.214**	-.079***	-.172*	-.098***	-.109	-.033	-.209**	-.076***	-.207**	-.148***	.214*	
	전라	.038*	-.039	.024	-.073	.016	-.076	-.020	-.071	.032	-.083*	.018	-.056	-.022	.151***	
	충청	.023	-.106*	-.024	-.151**	.001	-.092*	.038*	.001	-.004	-.111*	.016	-.062	-.024	.097*	
(상수)		-	.382	-	2.058***	-	2.376***	-	2.728***	-	2.591***	-	2.448***	-	2.625***	
R <sup>2</sup>		-	.135	-	.073	-	.079	-	.094	-	.070	-	.065	-	.084	
adj R <sup>2</sup>		-	.126	-	.063	-	.069	-	.084	-	.060	-	.055	-	.074	
F		-	14.420***	-	7.246***	-	7.920***	-	9.527***	-	6.998***	-	6.457***	-	8.495***	

\* p<.05, \*\* p<.01, \*\*\* p<.001

없는 사업장에 비해 노조가 있는 사업장의 노동자들이 만족도가 높고, 강원/제주에 비해 경상도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사회적 친분 관계에 대한 만족도가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어서, 비정규직 노동자의 영역별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상관관계 및 회귀분석 결과는 <표 7>에 제시된 바와 같다. 먼저, 비정규직 노동자의 가족의 수입에 대한 만족도에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변인들은 기혼, 교육년수, 시간당 임금, 직업에서 관리/전문직, 사무직, 서비스/판매직, 사업장 규모에서 500명 이상, 노조 있음, 거주지역에서 경기, 경상, 전라 등이 유의미한 연관관계를 나타냈으며, 인과적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연령(+), 미혼(+), 시간당 임금(+), 관리/전문직(+), 서울(-), 경기(-), 경상(-), 충청(-) 변인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을 나타냈다. 즉, 연령이 높을수록, 별거/이혼/사별한 사람에 비해 미혼인 사람들이, 시간당 임금이 많을수록, 단순 노무직에 비해 관리/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가족의 수입 만족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거주지역에서는 강원/제주에 비해 서울, 경기, 경상, 충청도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가족의 수입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주거환경에 대한 만족도에서는 연령, 미혼, 기혼, 교육년수, 시간당 임금, 직업에서 관리/전문직, 노조 있음, 거주지역에서 전라 등이 유의미한 연관관계를 나타냈고, 인과적 영향은 연령(+), 기혼(+), 관리/전문직(+) 변인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인과관계를 나타냈다. 즉, 비정규직 노동자의 주거환경에 대한 만족도는 연령이 높을수록, 별거/이혼/사별에 비해 기혼인 사람들이, 단순 노무직에 비해 관리/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주거환경에 대한 만족감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가족관계에 대한 만족도에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변인은 남성, 미혼, 기혼, 교육년수, 시간당 임금, 직업에서 관리/전문직, 사업장 규모에서 100-500명 미만, 500명 이상, 노조 있음, 거주지역에서 충청 등이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인과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결혼 상태 변인인 미혼(+), 기혼(+) 변인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인과관계를 나타냈다. 즉, 비정규직 노동자의 가족관계에 대한 만족도는 별거/이혼/사별에 비해 미혼과 기혼인 사람들이 가족관계에 대한 만족감이 높게 나타났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친인척 관계에 대한 만족도에서는 남성, 미혼, 기혼, 교육년수, 시간당 임금, 직업에서 관리/전문직, 사무직, 사업장 규모에서 500명 이상, 노조 있음, 거주지역에서 서울 등이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인과적으로 유의미한 변인은 연령(+), 기혼(+), 관리/전문직(+), 서울(-), 경기(-), 경상(-), 전라(-), 충청(-) 등의 변인이었다. 즉, 비정규직 노동자의 친인척 관계에 대한 만족도에서는 연령이 높을수록, 별거/이혼/사별에 비해 기혼자들이, 단순 노무직에 비해 관리/전문직에 종

<표 7> 비정규직 노동자의 영역별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회귀분석 결과

구분		가족의 수입 (N=692)		여가활동 (N=692)		주거환경 (N=692)		가족관계 (N=692)		친인척 관계 (N=692)		사회적 친분관계 (N=692)		주관적 건강상태 (N=693)	
		r	β	r	β	r	β	r	β	r	β	r	β	r	β
성(기준여성)	남성	-.021	-.079	-.033	.002	-.007	.001	-.046*	-.020	-.043*	-.024	-.028	.027	.030	.015
연령(만)		-.008	.227**	-.012	.124*	.054*	.173*	-.028	.076	-.007	.148*	-.026	.163**	-.295***	-.199**
결혼 상태	미혼	-.026	.201**	.005	.138*	-.087***	.036	-.071**	.163*	-.076***	.101	-.030	.190*	.157***	.103
(기준별거/이혼/사별)	기혼	.077***	.103	.052*	.072	.151***	.137*	.199**	.328***	.175***	.203***	.127***	.203***	-.002	.074
교육년수		.117***	.081	.121***	.067	.084***	.084	.120***	.039	.107***	.024	.110***	.033	.307***	.097
근속년수		.000	.000	-.009	.053	-.004	.005	-.032	-.038	-.019	-.004	-.021	-.022	-.047*	.028
(로그)시간당 임금		.165***	.140**	.116***	.051	.085***	.084	.080**	.074	.059*	.050	.095***	.086	.159***	.047
직업	관리/전문직	.179***	.129*	.176***	.207***	.127***	.119*	.135***	.040	.153***	.163**	.163***	.144*	.174***	.064
	사무직	.048*	.051	.078***	.100*	.040	.061	.035	-.003	.068**	.048	.014	.010	.076***	.021
	(기준:단순노무직) 서비스/판매직	-.050*	.039	-.029	.075	-.023	.037	-.011	-.044	-.023	.007	-.001	.026	.033	-.039
	기능/조립직	.003	.012	-.029	.054	-.012	-.009	-.022	-.040	-.040	-.029	-.035	-.043	-.004	-.010
사업장 규모	5-100명 미만	-.043	-.027	-.027	.034	.003	-.027	-.050	-.038	-.019	-.020	-.057	.000	-.082**	.064
	(기준:5명 미만) 100-500명 미만	.050	.025	.065*	.044	.059	.024	.098**	.072	.032	.015	.070*	.064	.087**	.108*
	500명 이상	.100**	.067	.030	.074	.029	.048	.095**	.062	.085**	.044	.098**	.081	.147***	.116*
노조(기준:노조없음)	노조있음	.077***	.006	.036***	.052	.056**	-.026	.064**	-.013	.030**	.006	.051*	-.016	.072***	-.027
거주 지역 (기준:강원/제주)	서울	-.038	-.233**	-.001	-.141	-.032	-.046	.038	.028	-.043*	-.174*	.017	-.018	.022	-.055
	경기	-.106***	-.353***	-.071***	-.201*	.004	-.073	-.037	-.086	.027	-.209*	.022	-.015	.140***	-.022
	경상	.081***	-.196*	.042	-.182*	-.012	-.044	-.035	-.071	-.004	-.235**	-.081***	-.173	-.082***	-.089
	전라	.065**	-.064	.049*	-.026	.030**	.016	.001	-.036	.041	-.157*	.038	-.011	.000	-.041
	충청	-.016	-.182**	-.027	-.102	-.010	-.056	.050*	-.013	-.038	-.212**	.020	-.036	-.108***	-.151*
(상수)		-	.817	-	.2046***	-	.1740**	-	.2331***	-	.2661***	-	.2021***	-	.3115***
R <sup>2</sup>		-	.114	-	.090	-	.063	-	.108	-	.093	-	.105	-	.162
adj R <sup>2</sup>		-	.088	-	.063	-	.036	-	.081	-	.066	-	.078	-	.137
F		-	4.330***	-	3.320***	-	2.274**	-	4.064***	-	3.448***	-	3.924***	-	6.502***

\* p<.05, \*\* p<.01, \*\*\* p<.001

사하는 사람들이 친인척 관계에 대한 만족도 수준이 높고, 거주지역에서는 강원/제주 지역에 비해 서울, 경기, 경상, 전라, 충청 등 모든 지역이 친인척 관계에 대한 만족감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사회적 친분 관계에 대한 만족도에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변인은 기혼, 교육년수, 시간당 임금, 직업에서 관리/전문직, 사업장 규모에서 100-500명 미만, 500명 이상, 노조 있음, 거주지역에서 경상 등이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인과적으로 유의미한 변인은 연령(+), 미혼(+), 기혼(+), 관리/전문직(+) 변인으로 나타났다. 즉, 비정규직 노동자의 사회적 친분 관계에 대한 만족도는 연령이 높을수록, 별거/이혼/사별에 비해 미혼자와 기혼자들이, 단순 노무직에 비해 관리/전문직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사회적 친분 관계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주관적 건강상태에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변인을 살펴보면, 연령, 미혼, 교육년수, 근속년수, 시간당 임금, 직업에서 관리/전문직, 사무직, 사업장 규모에서 5-100명 미만, 100-500명 미만, 500명 이상, 노조 있음, 거주지역에서 경기, 경상, 충청 등이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인과적으로 유의미한 변인은 연령(-), 사업장 규모에서 100-500명 미만(+), 500명 이상(+), 충청(-) 등의 변인으로 나타났다. 즉, 비정규직 노동자의 주관적 건강상태는 연령이 높을수록 건강이 좋지 않으며, 사업장 규모에 있어서는 5인 미만 사업장에 비해 100-500명 미만과 500명 이상의 비교적 규모가 큰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주관적 건강상태를 양호하게 평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지역에서는 강원/제주에 비해 충청도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주관적 건강상태가 양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4. 임금노동자의 전반적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상관 및 회귀분석 결과

임금노동자의 전반적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상관관계 및 회귀분석 결과는 <표 8>과 같다. 여기에서는 영역별 만족도를 독립변인으로 투입하기 위해 독립변인 간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공차의 한계(tolerance)와 분산팽창요인(VIF: Variance Inflation Factor)의 크기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 모든 변인에서 공차의 한계는 0.1보다 높았고, 분산팽창계수도 10 이하인 것으로 확인되어 독립변인 간의 다중공선성으로 인한 분석모형의 왜곡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했다.

먼저 임금노동자 전체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변인은 남성, 연령, 미혼, 기혼, 교육년수, 근속년수, 시간당 임금, 직업에서 관리/전문직, 사무직, 서비스/판매직, 기능/조립직, 사업장 규모에서 5-100명 미만, 500명 이상, 노조 있음, 거주지역에서 경기, 경상, 충청, 영역별 만족도에서는 가족의 수입, 여가활동, 주거환경, 가족관계, 친인척 관계, 사회적 친분관계, 주관적 건강상태 등의 변인이 유의미한 연관관계를 나타냈다. M1에서 인과적으로 유의미한 변인은 기혼(+), 교육년수(+), 시간당 임금(+), 관리/전문직(+), 서울(-), 경기(-), 경상(-), 충청(-) 등의 변인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임금근로자 전체에서는 별거/이혼/사별에 비해 기혼자들이, 교육년수가 높을수록, 시간당 임금이 높을수록, 단순 노무직에 비해 관리/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삶의 질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M2에서는 인적속성, 인적자본, 노동시장 변인들을 통제하고 영역별 만족도 변인을 투입한 모형으로 모형적합도는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고

( $F=140.918$ ,  $p<.001$ ), 삶의 질 전체 변량의 60%를 설명하고 있다. M2에서는 시간당 임금(+), 경상(-), 충청(-), 가족의 수입(+), 여가활동(+), 주거환경(+), 가족관계(+), 친인척 관계(+), 사회적 친분 관계(+), 주관적 건강상태(+) 등의 변인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임금노동자들은 시간당 임금이 높을수록 삶의 질이 높고, 강원/제주에 비해 경상, 충청도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삶의 질이 낮으며, 영역별 만족도 변인인 가족의 수입, 여가활동, 주거환경, 가족관계, 친인척 관계, 사회적 친분관계, 주관적 건강상태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삶의 질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M1에서 유의미했던 변인들이 M2에서 그 영향력이 사라지기도 했는데, 이는 영역별 만족도 변인이 영향력이 사라진 변인들을 압도하여 그 영향력을 소멸시킬 정도로 삶의 질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판단할 수 있다. 영역별 만족도 변인 가운데 상대적 크기를 보면, 사회적 친분관계 변인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이 주거환경, 여가활동, 가족의 수입, 친인척 관계, 가족관계, 주관적 건강상태 순이었다.

정규직 노동자의 삶의 질에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변인은 연령, 미혼, 기혼, 교육년수, 근속년수, 시간당 임금, 직업에서 관리/전문직, 사무직, 서비스/판매직, 기능/조립직, 사업장 규모에서 5-100명 미만, 500명 이상, 노조 있음, 거주지역에서 경기, 경상, 충청, 영역별 만족도에서는 가족의 수입, 여가활동, 주거환경, 가족관계, 친인척 관계, 사회적 친분관계, 주관적 건강상태 등의 변인이 유의미한 연관관계를 나타냈다. M1에서 유의미한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변인은 남성(-), 시간당 임금(+), 서울(-), 경기(-), 경상(-), 충청(-) 등의 변인이었다. 즉, 정규직 노동자는 여성에 비해 남성 노동자들의 삶의 질이 낮으며, 시간당 임금이 높은 노동자들의 삶의 질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거주지역에서 강원/제주에 비해 서울, 경기, 경상, 충청도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삶의 질이 낮다는 것도 알 수 있다. M2에서는 M1의 변인들을 통제하고 영역별 만족도 변인을 투입한 모형으로 모형적합도는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고( $F=89.217$ ,  $p<.001$ ), 정규직 노동자의 삶의 질 전체 변량의 56.7%를 설명하고 있다. 인과적 영향력을 나타내는 변인으로서는 시간당 임금(+), 충청(-), 가족의 수입(+), 여가활동(+), 주거환경(+), 가족관계(+), 친인척 관계(+), 사회적 친분관계(+), 주관적 건강상태(+) 등의 변인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즉, 정규직 노동자들은 시간당 임금이 높을수록 삶의 질이 높고, 강원/제주에 비해 충청도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삶의 질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영역별 만족도 수준이 높을수록 삶의 질이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영역별 만족도 변인 가운데 상대적 크기를 보면, 사회적 친분관계 변인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이 주거환경, 여가활동, 가족의 수입, 가족관계, 친인척 관계, 주관적 건강상태 순이었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삶의 질에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변인은 미혼, 기혼, 교육년수, 시간당 임금, 직업에서 관리/전문직, 사업장 규모에서 100-500명 미만, 500명 이상, 노조 있음, 거주지역에서 전라, 충청, 영역별 만족도에서는 가족의 수입, 여가활동, 주거환경, 가족관계, 친인척 관계, 사회적 친분관계, 주관적 건강상태 등의 변인이 유의미한 연관관계를 나타냈다. M1에서 유의미한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변인은 기혼(+), 시간당 임금(+), 관리/전문직(+), 경상(-), 충청(-) 등의 변인이었다. 즉, 비정규직 노동자는 별거/이혼/사별에 비해 기혼자들이, 시간당 임금이 높을수록, 단순 노동자에 비해 관리/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일수록 삶의 질이 높고, 강원/제주에 비해 경상, 충청도

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삶의 질이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M2에서는 M1의 변인들을 통제하고 영역별 삶의 만족도 변인을 투입한 모형으로 모형적합도는 양호하고( $F=46.695$ ,  $p<.001$ ), 비정규직 노동자의 삶의 질 전체 변량의 65.5%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역별 만족도 변인은 M1에 투입했던 변인의 영향력을 소멸시켜 비정규직 삶의 질에 매우 중요한 영향력을 보이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인과적으로 영향을 나타낸 변인은 가족관계를 제외한 가족의 수입(+), 여가활동(+), 주거환경(+), 친인척 관계(+), 사회적 친분관계(+), 주관적 건강상태(+), 등의 변인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영역별 만족도의 상대적 크기를 보면, 사회적 친분관계가 가장 큰 영향력을 나타냈고, 여가활동, 친인척 관계, 주거환경, 가족의 수입, 주관적 건강상태, 가족관계 순이었다.

<표 8> 임금노동자의 전반적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회귀분석 결과

구분		임금노동자 전체			정규직			비정규직		
		$r$	M1 (N=2,560)	M2 (N=2,560)	$r$	M1 (N=1,868)	M2 (N=1,868)	$r$	M1 (N=692)	M2 (N=692)
			$\beta$	$\beta$		$\beta$	$\beta$		$\beta$	$\beta$
성(기준여성)	남성	.048***	-.032	-.005	.026	-.068**	-.026	-.013	.041	.044
연령(만)		-.112***	-.019	-.018	-.043*	-.060	-.015	-.039	.111	-.035
결혼 상태(기준별거/이혼/사별)	미혼	-.067***	.030	-.026	-.099***	-.036	-.028	-.045*	.119	-.045
	기혼	.163***	.113**	-.003	.136***	.069	-.001	.166***	.149**	-.016
교육년수		.246***	.058*	.003	.193***	.048	-.001	.150***	.073	.014
근속년수		.124***	.042	.013	.126***	.044	.006	-.017	.019	.016
(로그)시간당 임금		.262***	.175***	.042*	.239***	.176***	.048*	.118***	.114*	.030
직업 (기준:단순노무직)	관리/전문직	.179***	.080*	.005	.118***	.079	.026	.189***	.129*	-.025
	사무직	.107***	.014	-.037	.057***	.018	-.024	.040	.013	-.033
	서비스/판매직	-.093***	-.023	-.036	-.067***	-.003	-.024	-.039	-.008	-.038
	기능/조립직	-.074***	-.032	-.030	-.108***	-.006	-.013	-.036	-.060	-.048
사업장 규모 (기준:5명 미만)	5-100명 미만	-.125***	.004	-.026	-.141***	-.049	-.054	-.029	.003	.003
	100-500명 미만	.025	.025	-.010	-.030	-.034	-.033	.079*	.064	.013
	500명 이상	.184***	.083	.011	.188***	.036	.003	.069*	.051	-.025
노조(기준:노조없음)	노조있음	.168***	.031	.007	.141***	.043	.011	.081***	-.006	-.005
거주 지역 (기준:강원/제주)	서울	-.014	-.119**	-.044	-.015	-.132*	-.052	-.009	-.120	-.020
	경기	.065***	-.152**	-.035	.075***	-.151*	-.032	.026	-.170	-.037
	경상	-.045***	-.227***	-.078*	-.070***	-.219**	-.064	-.029	-.282**	-.100
	전라	.024	-.060	-.017	.018	-.064	-.013	.053*	-.065	-.022
	충청	-.059***	-.136***	-.063**	-.035*	-.137**	-.067*	-.057**	-.149*	-.042
영역별 만족도	가족의 수입	.477***		.110***	.415***		.102***	.499***		.135***
	여가활동	.532***		.155***	.492***		.142***	.535***		.182***
	주거환경	.570***		.157***	.541***		.171***	.570***		.135***
	가족관계	.579***		.068***	.549***		.086***	.575***		.023
	친인척 관계	.610***		.095***	.563***		.079**	.636***		.143***
	사회적 친분관계	.652***		.336***	.628***		.317***	.653***		.378***
	주관적 건강상태	.370***		.068***	.327***		.068***	.346***		.077**
	(상수)	-	2.002***	.035***	-	2.148***	.147	-	1.959***	-.017
$R^2$		-	.136	.600	-	.120	.567	-	.111	.655
$adj R^2$		-	.129	.596	-	.110	.561	-	.085	.640
$F$		-	19.997***	140.918***	-	12.547***	89.217***	-	4.206***	46.595***

\*  $p<.05$ , \*\*  $p<.01$ , \*\*\*  $p<.001$

## 5. 성별 비정규직 노동자의 전반적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상관 및 회귀분석 결과

성별 비정규직 노동자의 전반적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분석결과는 <표 9>에 제시된 바와 같다. 남성 비정규직 노동자의 삶의 질에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변인은 연령, 미혼, 기혼, 교육년수, 시간당 임금, 직업에서 관리/전문직, 사업장 규모에서 100-500명 미만, 500명 이상, 노조 있음, 거주지역에서 전라, 충청, 영역별 만족도에서는 가족의 수입, 여가활동, 주거환경, 가족관계, 친인척 관계, 사회적 친분관계, 주관적 건강상태 등의 변인이 유의미한 연관관계를 나타냈다. M1에서 유의미한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변인은 연령(+), 미혼(+), 기혼(+), 시간당 임금(+), 관리/전문직(+), 서울(-), 경기(-), 경상(-), 충청(-) 등의 변인이었다. 즉, 남성 비정규직 노동자는 연령이 높을수록, 별거/이혼/사별에 비해 미혼과 기혼자들이, 시간당 임금이 높을수록, 단순 노무직에 비해 관리/전문직 노동자들의 삶의 질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거주지역에서 강원/제주에 비해 서울, 경기, 경상, 충청도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삶의 질이 낮다는 것도 확인되었다. M2에서는 M1의 변인들을 통제하고 영역별 만족도 변인을 투입한 모형으로 모형적합도는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F=28.422$ ,  $p<.001$ ), 남성 비정규직 노동자의 삶의 질 전체 변량의 68.4%를 설명하고 있다. 인과적 영향력을 나타내는 변인으로서는 시간당 임금(+), 서울(-), 경상(-), 가족의 수입(+), 여가활동(+), 주거환경(+), 가족관계(+), 친인척 관계(+), 사회적 친분관계(+), 주관적 건강상태(+) 등의 변인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즉, 남성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시간당 임금이 높을수록 삶의 질이 높고, 강원/제주에 비해 서울, 경상도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삶의 질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영역별 만족도 수준이 높을수록 삶의 질이 높고, 영역별 만족도 변인 가운데 상대적 크기를 보면, 사회적 친분관계 변인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이 친인척 관계, 여가활동, 가족의 수입, 주거환경, 가족관계, 주관적 건강상태 순이었다.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의 삶의 질에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변인은 연령, 기혼, 교육년수, 시간당 임금, 직업에서 관리/전문직, 노조 있음, 영역별 만족도에서는 가족의 수입, 여가활동, 주거환경, 가족관계, 친인척 관계, 사회적 친분관계, 주관적 건강상태 등의 변인이 유의미한 연관관계를 나타냈다. M1에서는 유의미한 인과적 변인이 관찰되지 않았다. M2에서는 M1의 변인들을 통제하고 영역별 만족도 변인을 투입한 모형으로 모형적합도는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F=23.094$ ,  $p<.001$ ),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의 삶의 질 전체 변량의 66.9%를 설명하고 있다. 인과적 영향력을 나타내는 변인으로서는 연령(-), 기혼(-), 가족의 수입(+), 여가활동(+), 주거환경(+), 친인척 관계(+), 사회적 친분관계(+) 등의 변인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즉,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연령이 높을수록, 별거/이혼/사별에 비해 기혼자들의 삶의 질이 낮고, 영역별 만족도에서는 가족의 수입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여가활동에 대한 만족도 수준이 높을수록, 주거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친인척 관계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사회적 친분관계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삶의 질이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영역별 만족도 변인 가운데 상대적 크기를 보면, 사회적 친분관계 변인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이 여가활동, 주거환경, 친인척 관계, 가족의 수입, 가족관계, 주관적 건강상태 순이었다.

<표 9> 남성 비정규직과 여성 비정규직의 전반적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회귀분석 결과

구분		남성 비정규직			여성 비정규직		
		<i>r</i>	M1 (N=368)	M2 (N=368)	<i>r</i>	M1 (N=324)	M2 (N=324)
			$\beta$	$\beta$		$\beta$	$\beta$
연령(만)		.074*	.230**	.073	-.147***	-.064	-.144*
결혼 상태(기준:별거/이혼/사별)	미혼	-.112***	.244*	.082	.036	-.029	-.206**
	기혼	.200***	.221*	.050	.134***	.025	-.119*
교육년수		.115***	.009	-.042	.181***	.143	.103
근속년수		-.011	.004	.010	-.023	.049	.024
(로그)시간당 임금		.114**	.171**	.081*	.121***	.034	-.058
직업 (기준:단순노무직)	관리/전문직	.186***	.155*	.009	.191***	.070	-.065
	사무직	.020	.027	-.042	.052	-.061	-.041
	서비스/판매직	-.026	.030	.029	-.059	-.055	-.090
	기능/조립직	-.039	-.070	-.051	-.026	-.075	-.052
사업장 규모 (기준:5명 미만)	5-100명 미만	-.028	-.021	-.057	-.038	.027	.072
	100-500명 미만	.101*	.051	-.043	.061	.059	.091
	500명 이상	.086*	.028	-.059	.059	.079	.029
노조(기준:노조없음)	노조있음	.102**	.060	.037	.062*	-.071	-.038
거주 지역 (기준:강원/제주)	서울	-.050	-.302**	-.144*	.029	.026	.060
	경기	.026	-.379**	-.158	.027	.006	.049
	경상	-.020	-.446**	-.227**	-.038	-.165	-.014
	전라	.089**	-.127	-.067	.020	-.040	-.022
	충청	-.075*	-.186*	-.092	-.042	-.100	.026
영역별 만족도	가족의 수입	.511***		.122***	.489***		.150***
	여가활동	.525***		.154***	.544***		.216***
	주거환경	.578***		.100*	.563***		.190***
	가족관계	.604***		.098*	.547***		-.097
	친인척 관계	.678***		.156**	.597***		.153*
	사회적 친분관계	.669***		.354***	.637***		.392***
	주관적 건강상태	.315***		.084*	.375***		.075
(상수)		-	1.592**	-.346	-	2.846***	.872
$R^2$		-	.164	.684	-	.115	.669
$adj\ R^2$		-	.119	.660	-	.060	.640
$F$		-	3.605***	28.422***	-	2.076**	23.094***

\* p<.05, \*\* p<.01, \*\*\* p<.001

## V. 요약 및 결론

### 1. 분석결과 요약

이 연구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삶의 질이 삶의 주관적 목표와 객관적 환경과의 일치 정도를 반영하고 있는 삶의 특정 영역에 대한 만족도의 결과임을 밝혀보고자 했다. 전반적인 삶의 질은 삶을 구성하는 각각의 영역에 대한 만족도와 깊은 연관성이 있으며, 이러한 영역별 만족도는 삶의 질에 대한 객관적 조건보다 더 상세한 설명을 제공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일상생활에 대한 전반적 만족감과 삶의 영역별 만족도인 “가족의 수입”, “여가 생활”, “주거 환경”, “가족 관계”, “친인척 관계”,

“사회적 친분 관계”, “주관적 건강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 우선 분석한 후, 삶의 질을 측정하고 있는 일상생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이 무엇인지에 밝혀보고자 했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연구에서는 임금노동자 5,607명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이 가운데 정규직 노동자는 3,454명으로 61.6%였고, 비정규직 노동자는 2,153명으로 38.4%였다. 또한, 정규직에서 남성은 65.4%였고, 여성이 34.6%였다. 비정규직에서 남성은 48.4%였으며, 여성은 51.6%였다. 정규직은 남성이 많은 분포를 차지한 반면 비정규직은 여성이 더 많은 분포를 나타냈다.

둘째, 삶의 질을 측정하는 전반적 생활에 대한 만족도에서 임금노동자 전체는 5점 만점에 평균 3.46점이었고 정규직 노동자는 3.56, 비정규직 노동자는 3.30으로 나타나 비정규직 노동자의 삶의 질이 임금노동자 전체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며, 정규직 노동자에 비해 낮은 점수를 보였다. 또한, 삶의 영역별 만족도에서도 정규직 노동자들에 비해 삶의 질이 현저히 낮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성별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삶의 질 평균차이 검증결과에서는 남성 정규직과 남성 비정규직, 남성 정규직과 여성 비정규직, 여성 정규직과 남성 비정규직, 여성 정규직과 여성 비정규직 모두에서 영역별 만족도는 남성 정규직과 여성 정규직이 남성 비정규직과 여성 비정규직보다 평균이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하지만, 남성 비정규직과 여성 비정규직의 평균차이 검증에서는 가족관계 만족도와 친인척 관계 만족도에서 여성 비정규직의 평균이 높았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넷째, 임금노동자 전체의 영역별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상관관계 및 회귀분석결과, 가족의 수입에 대한 만족도는 여성에 비해 남성이 가족의 수입에 대한 만족도가 낮으며, 연령이 높을수록, 별거/이혼/사별한 사람에 비해 미혼, 기혼인 사람들이, 교육년수가 높을수록, 시간당 임금이 많을수록, 단순 노무직에 비해 관리/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가족의 수입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또한, 거주지역에서는 강원/제주에 비해 서울, 경기, 경상, 충청도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가족의 수입에 대한 만족도가 낮았다.

여가활동에 대한 만족도는 교육년수가 높을수록, 근속년수가 길수록, 시간당 임금이 높을수록, 단순 노무직에 비해 관리/전문직과 사무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여가활동 만족도가 높고, 거주지역에서는 강원/제주에 비해 서울, 경기, 경상, 충청도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여가활동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환경에 대한 만족도는 별거/이혼/사별에 비해 기혼인 사람들이, 교육년수가 높을수록, 근속년수가 길수록, 시간당 임금이 높을수록, 단순 노무직에 비해 관리/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주거환경에 대한 만족감이 높았다. 거주지역에서는 강원/제주에 비해 경상, 충청도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주거환경에 대한 만족감이 낮았다.

가족관계에 대한 만족도는 여성에 비해 남성이 낮게 나타났으며, 별거/이혼/사별에 비해 미혼과 기혼인 사람들이, 시간당 임금이 높을수록 가족관계에 대한 만족감이 높았다. 거주지역에서는 강원/제주에 비해 전라도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가족관계에 대한 만족감이 낮았다. 친인척 관계에 대한 만족도에서는 별거/이혼/사별에 비해 기혼자들이, 시간당 임금이 높을수록 친인척 관계에 대한 만

족도 수준이 높고, 거주지역에서는 강원/제주 지역에 비해 서울, 경기, 경상, 전라, 충청 등 모든 지역이 친인척 관계에 대한 만족감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친분 관계에 대한 만족도는 별거/이혼/사별에 비해 기혼자들이, 시간당 임금이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고, 강원/제주에 비해 경상도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사회적 친분 관계에 대한 만족도가 낮았다. 주관적 건강상태는 연령이 높을수록 건강이 좋지 않으며, 교육년수가 높을수록, 근속년수가 길수록, 시간당 임금이 높을수록 주관적 건강상태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사업장 규모에 있어서는 5인 미만 사업장에 비해 100-500명 미만과 500명 이상의 비교적 규모가 큰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노동자들이 주관적 건강상태를 양호하게 평가했다. 또한, 지역에서는 강원/제주에 비해 서울, 경기, 전라도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주관적 건강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정규직 노동자의 가족의 수입에 대한 만족도는 여성에 비해 남성이 만족도가 낮으며, 별거/이혼/사별한 사람에 비해 미혼, 기혼인 사람들이, 시간당 임금이 많을수록 가족의 수입 만족도가 높았다. 또한, 거주지역에서는 강원/제주에 비해 서울, 경기, 경상, 충청도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가족의 수입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규직 노동자의 여가활동에 대한 만족도는 교육년수가 높을수록, 근속년수가 길수록, 시간당 임금이 높을수록 여가활동 만족도가 높고, 거주지역에서는 강원/제주에 비해 서울, 경기, 경상, 충청도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여가활동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규직 노동자의 주거환경에 대한 만족도는 별거/이혼/사별에 비해 기혼인 사람들이, 교육년수가 높을수록, 근속년수가 길수록, 시간당 임금이 높을수록 주거환경에 대한 만족감이 높았다. 거주지역에서는 강원/제주에 비해 경상, 충청도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주거환경에 대한 만족감이 낮았다.

정규직 노동자의 가족관계에 대한 만족도는 여성에 비해 남성이 낮게 나타났으며, 연령이 높을수록 가족관계에 대한 만족도가 낮았고, 별거/이혼/사별에 비해 기혼인 사람들이, 시간당 임금이 높을수록 가족관계에 대한 만족감이 높게 나타났다. 정규직 노동자의 친인척 관계에 대한 만족도에서는 연령이 높을수록 친인척 관계에 대한 만족도가 낮으며, 교육년수가 높을수록, 시간당 임금이 높을수록 친인척 관계에 대한 만족도 수준이 높고, 거주지역에서는 강원/제주 지역에 비해 서울, 경기, 경상, 전라, 충청 등 모든 지역에서 친인척 관계에 대한 만족감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규직 노동자의 사회적 친분 관계에 대한 만족도는 시간당 임금이 높을수록, 노조가 없는 사업장에 비해 노조가 있는 사업장의 노동자들이 만족도가 높고, 강원/제주에 비해 경상도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사회적 친분 관계에 대한 만족도가 낮았다.

정규직 노동자의 주관적 건강상태는 연령이 높을수록 건강이 좋지 않다고 평가하며, 시간당 임금이 높을수록 주관적 건강상태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사업장 규모에 있어서는 5인 미만 사업장에 비해 100-500명 미만의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노동자들이 주관적 건강상태를 양호하게 평가했다. 또한, 지역에서는 강원/제주에 비해 서울, 경기, 경상, 전라, 충청도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주관적 건강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비정규직 노동자의 가족의 수입에 대한 만족도에서는 연령이 높을수록, 별거/이혼/사별한 사람에 비해 미혼인 사람들이, 시간당 임금이 많을수록, 단순 노무직에 비해 관리/전문직에 종



사하는 사람들이 가족의 수입 만족도가 높았다. 또한, 거주지역에서는 강원/제주에 비해 서울, 경기, 경상, 충청도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가족의 수입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여가활동에 대한 만족도는 연령이 높을수록, 별거/이혼/사별에 비해 미혼자들이, 단순 노무직에 비해 관리/전문직과 사무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여가활동 만족도가 높고, 거주지역에서는 강원/제주에 비해 경기, 경상도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여가활동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주거환경에 대한 만족도는 연령이 높을수록, 별거/이혼/사별에 비해 기혼인 사람들이, 단순 노무직에 비해 관리/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주거환경에 대한 만족감이 높았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가족관계에 대한 만족도는 별거/이혼/사별에 비해 미혼과 기혼인 사람들이 가족관계에 대한 만족감이 높게 나타났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친인척 관계에 대한 만족도에서는 연령이 높을수록, 별거/이혼/사별에 비해 기혼자들이, 단순 노무직에 비해 관리/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친인척 관계에 대한 만족도 수준이 높고, 거주지역에서는 강원/제주 지역에 비해 서울, 경기, 경상, 전라, 충청 등 모든 지역이 친인척 관계에 대한 만족감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사회적 친분 관계에 대한 만족도는 연령이 높을수록, 별거/이혼/사별에 비해 미혼자와 기혼자들이, 단순 노무직에 비해 관리/전문직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사회적 친분 관계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주관적 건강상태는 연령이 높을수록 건강이 좋지 않으며, 사업장 규모에 있어서는 5인 미만 사업장에 비해 100-500명 미만과 500명 이상의 비교적 규모가 큰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주관적 건강상태를 양호하게 평가했다. 거주지역에서는 강원/제주에 비해 충청도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주관적 건강상태가 양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곱째, 임금노동자의 전반적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상관 및 회귀분석 결과에서 임금노동자들은 시간당 임금이 높을수록 삶의 질이 높고, 강원/제주에 비해 경상, 충청도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삶의 질이 낮으며, 영역별 만족도 변인인 가족의 수입, 여가활동, 주거환경, 가족관계, 친인척 관계, 사회적 친분관계, 주관적 건강상태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삶의 질이 높게 나타났다. 정규직 노동자들은 시간당 임금이 높을수록 삶의 질이 높고, 강원/제주에 비해 충청도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삶의 질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영역별 만족도 수준이 높을수록 삶의 질이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가족관계를 제외한 영역별 만족도 즉, 가족의 수입, 여가활동, 주거환경, 친인척 관계, 사회적 친분관계, 주관적 건강상태에 대한 만족도 수준이 높을수록 삶의 질이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끝으로, 성별 비정규직 노동자의 전반적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상관 및 회귀분석 결과에서는 남성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시간당 임금이 높을수록 삶의 질이 높고, 강원/제주에 비해 서울, 경상도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삶의 질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영역별 만족도 수준이 높을수록 삶의 질이 높았다.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연령이 높을수록, 별거/이혼/사별에 비해 기혼자들의 삶의 질이 낮고, 영역별 만족도에서는 가족의 수입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여가활동에 대한 만족도 수준이 높을수록, 주거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친인척 관계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사회적 친분관계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삶의 질이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 2. 연구의 시사점

이 연구의 분석결과는 기존의 고용지위에 따른 삶의 질의 차이에 관한 연구에서와 마찬가지로 비정규직 노동자의 삶의 질이 정규직에 비해 낮게 나타나 비정규직의 노동자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노력의 필요성을 재확인해 주고 있다. 그리고 시간당 임금은 각 삶의 영역과 전반적인 삶의 질에 중요한 영향요인으로 나타나 소득의 중요성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시간당 임금이 정규직에서는 7개 삶의 영역과 전반적인 삶의 만족에 매우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었으나 비정규직에서는 7개 삶의 영역 중 가족의 수입 영역에서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비정규직의 전반적인 삶의 만족을 설명하는 모델 M2에서는 영향력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삶의 질 개선이 단지 소득의 격차를 줄이는 것에 국한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분석결과에 나타난 각 삶의 영역과 전반적인 삶의 만족 간의 관계는 인간이 자신의 가치와 목표에 따라 행동하는 실체이고 자신의 삶에서 선택의 자유와 능력을 통해 행복을 느끼는 존재라는 점을 감안할 때, 임금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이 곧 자신의 삶에 만족하는 긍정적인 사람이 좋은 성과를 낳고 조직과 사회의 성공 원동력이 되는 선순환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 연구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시사점으로는 첫째, 한국 사회 비정규직 노동자의 삶의 질에 대한 평가이다. 연구 목적에서 밝힌 바와 같이 삶의 질은 주관적 만족감의 측정을 통해서 가늠할 수 있는데, 비정규직 노동자의 삶의 질에 대한 전반적 평가를 통해서 이들에 대한 삶의 고됨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고용과 삶’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다.

둘째, 그동안 대다수의 연구들은 단순히 삶의 질에 대한 결정요인을 개별적으로 규명해내는데 그친 반면, 이 연구에서는 각각의 영역별 만족도가 갖는 영향력을 확인하고 그 상대적인 크기까지 살펴본다는 차별성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심리적 변인의 구조적 작동 메커니즘을 파악하여 고용 특성별 차이를 규명한다면 주관적 심리변인효과의 불평등 수준을 보여줄 수 있다.

셋째, 이 연구의 분석결과는 객관적 지표로 구성된 모델보다 삶의 영역별 만족도 변인이 추가된 모델이 삶의 질에 대한 설명력을 더 높이는 것으로 나타나 삶의 질에 관한 평가에서 삶의 구성하는 객관적 지표와 주관적 지표의 필요성과 더불어 삶의 하위차원으로써의 영역별 측정에 대한 중요성을 보여주었다.

## 『참고문헌』

- 강성진 (2010), 「한국인의 생활만족도 결정요인 분석」, 『경제학연구』, 제58집, 1호, pp.5-36.
- 강영희 (2016), 「고학력 취업여성의 일자리 만족과 생활만족의 결정요인 탐색」, 『젠더와 문화』, 제9권 1호, pp.101-129.
- 김경근(2009), 「교육과 ‘삶의 질’」. 한국의 사회동향과 삶의 질, 『한국사회학회 특별 심포지엄 발표

- 집』, pp.71-111.
- 문영남 (2014),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생활만족도 패널분석-잠재성장모형을 중심으로」, 『산업노동 연구』, 제20권 2호, pp.187-218.
- 박성복(2003), 「삶의 질의 개념과 비교방법」, 『한국정책과학회보』, 제7권, 3호, pp.57-80.
- 박재규 (2001). 「신자유주의 경제정책과 노동자의 삶의 질 변화」. 『한국사회학』, 제35권 6호, pp.79-104.
- 선요한, 박지웅, 노명숙, 정해웅 (2015), 「대한민국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 간의 건강 관련 삶의 질 비교」, 『가정의학』, 5(3), pp.935-945
- 신승배 (2015), 「한국인의 행복감 결정요인」, 『사회과학연구』, 제41권 2호, pp.183-208.
- 이현송 (1999), 「주관적 삶의 질의 구성과 결정요인」, 『한국노동패널 학술대회 논문집』, 제1집, 한국노동연구원, pp.185-206.
- Campbell, A. (1981), *The Sense of Well-Being in America*, New York: McGraw-Hill.
- Campbell, Angus & Converse, Philip E. & Rodgers, Willard L.(1976), *The Quality of American Life: Perceptions, Evaluations and Satisfaction*, Russell Sage Foundation.
- Cummins, R. A.(1996). "The Domains of Life Satisfaction: An Attempt to Order Chaos", *Social Indicators Research*, Vol. 38, pp.303-328.
- Diener, E. (1984), "Subjective well-being", *Psychological Bulletin*, Vol. 95, No. 3, pp.542-575.
- Easterlin, R. A. & Sawangfa, O.(2009), "Happiness and domain satisfaction: new directions for the economics of happiness" In Dutt, A. K & Radcliff B.(eds), *Happiness, Economics and Politics*, Edward Elgar.
- Easterlin, R. A. (1974), "Does Economic Growth improve the Human Lots?" In *Economic Growth: Essays in Honor of Moses Abramovitz*, New York: Academic Press.
- Easterlin, R. A. (1995), "Will raising the Incomes of All Increase the Happiness of All?" *Journal of Economic Behavior and Organization*, Vol. 27, pp.35-47.
- Easterlin, R. A. (2006), "Life cycle happiness and its sources: Intersections of psychology, economics, and demography", *Journal of Economic Psychology*, Vol. 27, issue 4, pp.463-482
- Frey, B. and A. Stutzer (2002), *Happiness and Economics*, Princeton University Press.
- Gandelman, N., Piani, G., & Ferre, Z. (2012), "Neighborhood determinants of quality of life", *Journal of Happiness Studies*, Vol. 13, pp.547-463.
- OECD (2016), 『OECD 한국경제보고서』, OECD.
- Stiglitz, Joseph E., Sen, Amartya & Fitoussi, Jean-Paul(2009), *Report by the Commission on the Measurement of Economic Performance and Social Progress*.
- Ulrich Beck (2006), 홍성태 역, 『위험사회-새로운 근대(성)을 향하여』, 서울: 새물결.
- Van Praag, B. M. S. & Ferrer-I-Carbonell, A.(2004), *Happiness Quantified: A Satisfaction*

*Calculus Approach.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Oxford University Press.*

Veenhoven, R. (1991), "Is happiness relative?", *Social Indicators Research*, Vol. 24, pp.1-34.